

‘디자인, 문화기술과 만나다’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 개막

‘디자인 만나다’ 주제 2663점 역대 최대 규모 문화·기술·라이프스타일·비즈니스 테마 전시 ‘생태프로젝트’ 등 곳곳 연계 전시·학술 행사

종합 디자인 축제인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을 만나다(Meet Design)’를 주제로 7일부터 두달 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지역 곳곳에서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을 만나다” 주제는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디자인의 가치에 주목한다. 디자인비엔날레는 본전시와 특별전 4개, 연계·특별전 5개, 국제학술행사 2개, 디자인 체험 교육·시민 참여 프로그램 5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작품 2663점을 전시, 역대 최대 작품 수를 기록했다. 50개국에서 LG전자, 르노코리아 등 195개 기업과 이아남,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김현선 등 855명의 국내외 디자이너와 학생들이 참여한다.

◆ ‘문화·기술·라이프스타일 융합’ 4개 본 전시

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는 디자인이 ‘기술, 라이프스타일, K-문화와 만나 전세계로 이어져 비즈니스로 귀결된다’는 흐름을 담아 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문화, 비즈니스 4개 테마로 구성됐다.

1관(테크놀로지)은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해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향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AI, 웨어러블 로봇 EMD 4차 산업기술과 연관된 디자인을 선보인다. 2관(라이프스타일)은 공간 디자인, 세대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 공간, 친환경 디자인을 소개한다. 특히 ‘세컨드라이프 의자’는 지속가능한,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만들었다.

3관(컬처관)은 한국의 가요, 조형, 뷰티에 담긴 다양성을 소개한다. BTS활동지 유영해진 전복 완주의 ‘이원고택’ 미디어아트엔 이아남 작가가 참여했다.

4관(비즈니스)관은 디자인이 미적 조형

등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디자인어워드와 함께 세계 난제를 해결하려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다이슨,이케아,프라이탁 등 제품이 전시된다.

◆ ‘생태프로젝트’등 곳곳서 연계 전시·학술행사

광주전남 곳곳에선 특별·기념전과 연계 학술행사 등이 개최된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생태미술프로젝트’특별전은 작가 디자이너 시민들이 광주 중의공원에서 채집한 자연환경과 생태 소재로 포스터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예술을 선보인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특별전 ‘국제포스터디자인초대전’도 열린다. 26개국 355명디자이너가 참여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 디자이너와 학생이 참여해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소개한다.

동구 미로센터는 ‘순수의 결합, 공예, 인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7일부터 50개 작품을 전시한다. 7일부터 사흘간은 가치·트렌드·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열린다.

◆ 총감독 추천 꼭 봐야 할 10선은?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이틀 전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라이프스타일 2관에서 해방(신건우X최예나X로맨틱타이거)작품이 전시돼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지역 곳곳에서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다.

◆ ‘진화#1_흙, 진화#2_오피스, 진화#1_위크스페이스’, 한서디자인융합센터·디엑스·테드웍스 ▲ ‘시대를 초월한아이콘: 유럽미니멀리즘디자인의 역사, 4560디자인하우스 ▲ ‘퍼스널아이웨어’, 브리츠X킵 ▲ ‘최후에’, 스포어 코리아 등 4개 작가 ▲ ‘아원의 시공간’, 전해갑X이아남 ▲ ‘프로시카 컨셉카, 현대차 동차·자니브로스 ▲ ‘프렌즈 레이싱VR’, 브론 ▲ ‘if Design Award, iF ▲ ‘아세안웨이, ODX폴 꽃빌리지 ▲ ‘WALK&CHAIR’, 시니어보행기구

나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기술이 디자인을 만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미래에너지산업 순항...내년 국비 747억 확보

분산에너지·해상풍력·에너지복지 등 고루 반영...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 100억원도 확보



전남 신안 자은도 육상풍력단지.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산업 분야 국비 747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산업 추진에 순항이 기대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국비 반영 사업은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산업 지원, 에너지복지, 인력 양성 등 에너지 분야에 시급한 사업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 기반시설 확충’은 소재-

소자-모듈-시스템 간 일련의 공정 기술을 체계화한 실행기술 개발로 사업화를 조기 지원할 에너지신소소재산업 플랫폼 구축 56억원을 비롯해 차세대 그린도 반도체 센터 구축 3억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과 플랫폼 구축 25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심 지중화 16억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도모할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20억원도 포함됐다.

‘전력 기저차 등 기술개발·산업지원 기반’ 분야는 전기차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전환 기술 개발 40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17억원,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28억원 등이 반영돼 에너지산업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이 체감할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55억원,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 100억원,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시민층 에너지비용을 절감

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제 양성사업 10억원이 반영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연구단지 시범사업’, ‘해상풍력 단지 운영 기술 공동 연구·실증기지 구축’ 등 추가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분산에너지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가속화 등 에너지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 광산구, 10년 넘은 인조잔디 재활용 논란... “정비 규정 없어”

광주 광산구 한 체육공원에 심어진 인조잔디가 최초 심어진 이후 이식을 거쳐 현재까지 14년째 쓰이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산구 우산동 풍영인조잔디축구장 개보수 과정에서 제거된 인조잔디 220여 t 중 일부가 산월동 첨단종합운동장 등지에 심어졌다.

그러나 이식된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조잔디는 통상 7~9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축구장에서 배출된 인조잔디는 최소 10년 동안 교체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77%는 2019년 첨단종합운동장 골대와 산책로 등지에 심어졌다. 최초 식재 후 현재까지 최대 14년 동안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인조잔디는 수명이 다 할수록 넘어짐 등 위험한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잔디가 뻗뻗해지고 갈라지면서 찢리거나 베이는 부상 위험도 동반한다.

이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 교육청이 운동장에 깔리는 인조잔디 내구연한을 통상 수준으로 정하고, 각 학교별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는 체육시설 인조잔디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광산구도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육안상 하자가 없다’는 전제 아래 ‘인조잔디를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이 확보될 경우 통상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 부정적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다. 다만 “문제가 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비의 근거가 불분명해 예산절감 차원 등에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문제되지 않는 인조 잔디를 재활용하기도 했다”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환경부가 권고한 통상 내구연한을 지켜 정비코자 한다. 문제가 된 잔디는 조만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1호 태양광발전소	박선영	99.56	(1,211㎡/14,600㎡)
2. 신원2호 태양광발전소	최지하	99.56	(1,233㎡/14,600㎡)
3. 신원3호 태양광발전소	김가윤	99.56	(1,988㎡/14,600㎡)
4. 신원4호 태양광발전소	이준숙	99.56	(778㎡/14,600㎡)
5. 신원5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실	99.56	(778㎡/14,600㎡)
6. 신원6호 태양광발전소	박정애	99.56	(778㎡/14,600㎡)
7. 신원7호 태양광발전소	박정미	99.56	(778㎡/14,600㎡)
8. 신원8호 태양광발전소	최현주	99.56	(778㎡/14,600㎡)
9. 신원9호 태양광발전소	최고은	99.56	(846㎡/14,600㎡)
10. 신원10호 태양광발전소	손영희	99.56	(830㎡/14,600㎡)
11. 신원11호 태양광발전소	류기진	99.56	(814㎡/14,600㎡)
12. 신원12호 태양광발전소	남현두	99.56	(798㎡/14,600㎡)
13. 신원13호 태양광발전소	㈜일양에너지	99.56	(1,103㎡/14,600㎡)
14. 신원14호 태양광발전소	㈜유에너지	99.56	(1,887㎡/14,600㎡)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내정1호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56	(1,116㎡/21,731㎡)
2. 내정2호 태양광발전소	이박균	99.56	(866㎡/21,731㎡)
3. 내정3호 태양광발전소	이박균	99.56	(798㎡/21,731㎡)
4. 내정4호 태양광발전소	전미숙	99.56	(786㎡/21,731㎡)
5. 내정5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주	99.56	(856㎡/21,731㎡)
6. 내정6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주	99.56	내정 8-33 (848㎡/21,731㎡)
7. 내정7호 태양광발전소	양송이	99.56	8-34 (878㎡/21,731㎡)
8. 내정8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호	99.56	8-40 (960㎡/21,731㎡)
9. 내정9호 태양광발전소	임기영	99.56	172-1 (1,178㎡/21,731㎡)
10. 내정10호 태양광발전소	한영남	99.56	172-2 (1,059㎡/21,731㎡)
11. 내정11호 태양광발전소	전옥자	99.56	172-8 (924㎡/21,731㎡)
12. 내정12호 태양광발전소	양누리	99.56	(803㎡/21,731㎡)
13. 내정13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심,마흥덕	99.56	(836㎡/21,731㎡)
14. 내정14호 태양광발전소	김영희	99.56	(861㎡/21,731㎡)
15. 내정15호 태양광발전소	강성원	99.56	(958㎡/21,731㎡)
16. 내정16호 태양광발전소	김옥희	99.56	(1,009㎡/21,731㎡)
17. 내정17호 태양광발전소	황혜숙	99.56	(1,017㎡/21,731㎡)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3 나남 73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한채욱 (580624-1566913)
최 후 주 소 : 전남 진도군 지산면 하교야길 14(고야리)

위 망 한채욱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9월 7일

공 고 인 : 한민규
주 소 : 전남 진도군 지산면 하교야길 14(고야리)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8월 22일
공 고 기 간 : 2023. 9. 7 ~ 2023. 11. 7

■ 세무기장·조정 ■ 양도소득세
■ 법인설립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원은 근무 시간에 여유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기쁨과 근사도 가져다줍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남지역본부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칙의 안전 보건책임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